임플랜트 치료시 부착치은의 중요성과 형성

박경근 원장
신형대 치과의원

background

임플랜트 초창기의 주된 관심사는 골-임플랜트의 경계, 이용 가능한 골의 양과 질, 보철물의 디자인 등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치에서의 부착치은과 같이 임플랜트를 위한 각화조직의 필요성과 장기적 유지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각화치은이 없더라도 임플랜트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임플랜트의 유지에 각화부착치은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여, 각화치은의 존재가 임플랜트의 예후를 확실히 좋게 한다는 직접적인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지만 진전된 임플랜트 치료에 있어서는 임플랜트 주위 각화부착치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방법

보철 전 치주처치로써의 각화치은 형성은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보철물이 완성된 후에 각화치은의 형성은 예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랜트 식립 후 보철 치료 전, 임플랜트 식립 전 형성하는 것이 높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다. 그중, 2차 수술 시나 보철 치료 전 임플랜트에 FGG 또는 APF를 통해 부착 치은 형성에 대한 증례를 논하고자 한다.

결론

각화 치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플랜트 치료 시 장기적인 예후를 보장하기 위한 치료는 보철 치료 전 각화치은을 만들어 줌으로써, 각화치은의 부족에 의한 문제 제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